

제주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3부  
화해의 대장정

—

제3장 4·3의 해원(解冤)과 화해 / 장윤식  
제2절 해원과 추모

# 1. 집단학살 희생자 추모

## 1) 북촌리 너븐숭이 4·3위령성지



[그림 4] 북촌리 너븐숭이 4·3위령성지

조천읍 북촌리는 4·3사건을 통틀어 한날한시에 가장 많은 인명희생이 발생한 곳이다. 1949년 1월 17일 하루에 이루어진 참혹한 살육극으로 300여 명이 집단 희생되었다. 이른바 ‘북촌대학살’ 사건이다. 북촌리 주민들은 1993년 마을 원로회를 중심으로 4·3 피해조사를 하는 등 자체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또한 2000

년 5월 1일 유족회 발기인 회의를 거쳐 5월 16일 4·3 북촌리유족회를 창립하는 등 비교적 일찍부터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섰다.

북촌리 사건을 소재로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 삼촌』을 출간해 고초를 겪고 책은 판금됐지만 이 소설은 4·3진상규명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기려 너븐숭이 4·3위령성지 내에 ‘순이삼촌’ 문학비가 세워졌다.

북촌리 사건으로 희생된 어린아이의 일부는 너븐숭이 일대에 돌무덤으로 남아있다.

이곳 너븐숭이를 중심으로 4·3유적지 정비계획에 따라 2007년 2월 6일 기공식을 갖고 2년여의 공사 끝에 2009년 3월 31일 ‘너븐숭이 4·3위령성지’를 개관했다. 위령성지에는 294㎡ 규모의 ‘너븐숭이 4·3기념관’을 비롯해 위령비, ‘순이삼촌’ 문학비, 위령탑, 방사탑 등이 갖춰졌다.

위령비는 2007년 1월 16일 북촌리마을회와 4·3희생자북촌리유족회가 세웠는데 전면에는 북촌리 4·3희생자 영혼영위를 새겼고, 후면에는 다음과 같은 소설가 현기영의 글이 새겨졌다.

443위 조상님들이시어  
인간의 목숨  
그 창창한 미래와 모든 가능성을  
한순간에 빼앗긴 채

너무도 작은 시간을 살다간  
슬픈 영혼 영신님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되살아나  
마침내 역사가 되신 영혼 영신님네  
그 크나큰 슬픔의 권능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르게 다스려주소서

위령제단 입구에는 엄청난 참상을 겪은 북촌리 4·3 피해현황과 영혼들을 위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건수기가 세워졌다.

### 제주4·3희생자 북촌리원혼위령비건수기

서기 1948년 음력 12월 19일 새벽 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가 군 차량을 기습하여 군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인들이 들이닥쳐 온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학교 마당에 집결시켜 학살을 자행하다가 인근밭으로 4·50명씩 끌고가 무차별 사격으로 3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곳 너분승이는 학살의 현장이다.

그 이튿날(12월 20일) 살아남은 사람들은 함덕리로 소개되어 갔으나 또 거기에서 수십 명이 희생되었다. 이보다 앞서 음력 11월 16일에는 무장대의 습격에 대비하여 밤낮으로 보초 서던 민보단원 23명이 마을 동쪽 낸시빌레에서 학살당하였다.

군경의 탄압을 피하여 가까운 야산 숲속과 동굴에 숨어 있던 상당수의 주민들은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전단을 보고 손들고 내려왔다가 잔혹한 고문으로 죄가 씌워져 정드르비행장에서 집단 처형당하거나 바다에 던져져 수장되고 혹은 육지형무소로 보내어져 행방불명이 되었다.

원통한 죽음이었던건만 울음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말문에 족쇄를 채워진 지 어언 60년이 흘렀다. ... (중략) ... 1993년 마을 원로회에서는 4·3 진실이 규명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피해조사를 단행 439명의 희생자와 재산 피해상황을 조사하였고 유족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합동위령제를 봉행해 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의 뜻을 모아 이곳 너분승이에 위령비를 세우고 제단을 마련함으로써 억울하게 가신 영령들을 위무하고 이 자리를 평화시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기념사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서기 2007년 음력 12월 19일

북촌리 · 4·3희생자유족회

이 밖에 애기돌무덤 앞에는 시인 양영길의 추모시 ‘애기 돌무덤 앞에서’ 시비가 있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평화를 기원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표석을 세우는 등 추모와 위로의 뜻이 곳곳에 깃들어 있다.

## 2) 현의합장묘

1948년 11월 7일부터 시작된 남원읍 의귀·수망·한남리에 대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



[그림 5] 현의합장묘

으로 마을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인근 야산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은 수색 중 발견하는 주민들을 마구 죽이는가 하면 일부는 학교 안 임시 수용소에 가두었다. 이에 무장대는 1949년 1월 12일 새벽 군주둔지를 습격했으나 궤멸에 가까운 타

격을 입고 퇴각했다. 이때 군인 4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전후해 학교에 수용됐던 주민 80여 명이 1949년 1월 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 동쪽 200m 지점의 밭에서 토벌대에 의해 집단 학살당했다. 희생된 의귀리·수망리·한남리 주민들의 시신은 학살현장 일대에 흙만 씌워진 채 방치되었다가 그해 봄 의귀리 재건 과정에서 들것에 실려 속칭 ‘개탄물’ 지점의 옛 현의합장묘 터(의귀리 765-7번지)에 구덩이 세 개를 파고 아무렇게나 매장됐다.

유족들은 사태가 끝나자 1964년 토지매입, 1968년 봉분 단장 및 산담 축조와 매해 별초를 하는 등 묘역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1976년 ‘한 울타리 안에 3기의 묘가 있다는 뜻의 ‘삼묘동친회(三墓同親會)’라는 이름의 유족 모임(2002년 ‘현의합장묘4·3유족회’로 개칭)을 결성했고 1983년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 비를 세웠다.

현의합장묘 4·3유족회(회장 양봉천)는 2003년 9월 16일 현재의 현의합장묘(남원읍 수망리 893번지)로 이장하기 위해 파묘했는데 서쪽 묘에서 17구, 가운데 8구, 동쪽에서 14구 등 모두 39구(남자 15구, 여자 7구, 청소년 포함 2구 포함한 성별 미상 17구)가 참혹한 모습으로 발굴되었다. 발굴 유해는 봉분별로 화장을 하고 9월 20일 이곳에서

‘4·3현의합장 영가 하관 및 추도식’을 갖고 안장됐다.

현의합장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케 한다.

유난히 매섭고 시렸던 무자·기축년 그 겨울 곰도 범도 무서워 잔뜩 웅크려 지내면  
서도 따듯한 봄날 오려니 했더이다. 아, 그랬는데...

거동 불편한 하르방 할망, 꽃다운 젊은이들, 이름조차 호적부에 올리지 못한 물에  
기까지 악독한 총칼 앞에 원통하게 스러져 갔나이다. 허공중에 흩어진 영혼, 짓이겨  
져 뒤엎긴 육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불효 천년을 간다는데 무시로 도지는 설움  
앞에 행여, 누가 들을까 울음조차 속으로만 삼키던 무정한 세월이여! ‘살았지만 살  
아져라’ 위안 삼아 버틴 세월이여! 앙상한 어웁발 방앗불 질러 죽이고 태웠어도 뿌  
리까지 다 태워 없애진 못하는 법 아닙니까. 봄이면 희망처럼 뼈죽이 새순 돋지 않  
던가요. 참혹한 시절일랑 제발 다시 오지 말라 빌고 빌며 뒤틀린 모진 역사 부채로  
물려줄 수는 없다며 봉분 다지고 잔디 입혀 해원의 빗돌 세우나니, 여기 발걸음 한  
이들이여! 잠시 옷깃을 여미어 한 가닥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 보듬고 가신다면 헛  
된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는 새 생명이겠나이다.

서기 2004년 10월 7일

### 3) 예비검속희생자 위령비·묘역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내 각 경찰서에서는  
요시찰자 등을 구금했다. 구금된 주민들 다수는 계엄당국의 명령에 따라 1950년 7월~8  
월경 대정읍 첫알오름탄약고 터와 정드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집단총살당  
했다. 이들을 기리는 위령비가 각 지역에 건립되었다.

2010년 6월 8일 대한민국 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주지역  
예비검속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본 사건의 발단이 된 경찰의 예비검속은 해방 후 폐지되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제도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지역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예비검속을 불법적으로 실시하였다. 제주주둔  
해병대사령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계엄령 선포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제주지구 계엄사령부를 설치했으며, 특히 군법회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예비검속자들을 집단 총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것이  
었으며, 당시 계엄법 관련 조항 및 규정도 위반한 것이었다.

### (1)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원혼위령비



[그림 6]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원혼위령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제주경찰서에는 제주읍과 애월면·조천면 관내 주민 수백 명이 예비검속·구금되었다가 그해 7월 16일과 8월 4일, 그리고 8월19일~20일 등 수차례에 걸쳐 수장 혹은 정드르비행장에서 학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암매장 현장을 찾지 못했으며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를 2005년 3월 30일 제막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암매장 현장을 찾지

2002년 2월 23일 결성된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는 매해 6월 25일 제주시 용담동 레포츠공원 내에 세워진 위령제단에서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 (2) 첫알오름희생자추모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모슬포경찰서 관내 예비검속 구금자들이 일제강점기 첫알오름탄약고터에서 집단 희생되었는데 2007년 4·3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살현장에 추모비를 세웠다.

같은 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에 의한 희생이라 결정됐고, 2008년부터 매해 음력 7월 7일 백조일손유족회와 만벵디유족회가 합동위령제를 봉행하다가 2015년부터는 별도로 각각의 묘역에서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그림 7] 첫알오름희생자추모비

### (3) 삼면원혼위령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서귀포경찰서 관내 남원면·서귀면·중문면 예비검속자들이

서귀포 옛 절간고구마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그해 7월 29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장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일부 시신은 정드르비행장(현재 제주국제공항) 유해 발굴 당시 발굴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2001년 7월 24일 서귀포휴양림 ‘거린사슴’에서 첫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삼면유족회를 결성했다. 현 위령제단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2004년 서귀포시 하원리에 위령비와 함께 완공하여 희생자를 기리고 있으며 매해 음력 6월 15일 위령제를 봉행한다.

#### (4) 백조일손지지

1950년 음력 7월 7일 첫알오름 탄약고터에서 집단 총살당한 예비검속 희생자 중 132



[그림 9] 백조일손지지

구의 시신을 안장한 곳이다.

첫알오름 탄약고터 희생자들은 학살 6년 후인 1956년 5월 18일에야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시신 식별이 불가능해 사지 빼와 두개골을 대충 맞춘 후 132구를 구성해 안장했다. 시신 한 구 한 구가 누구의 조상인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백명이 넘는 조상들이 한날 한시 한곳에서 죽어

빼가 영기어 하나가 되었느니, 그 후손들은 이제 모두 한 자손’이란 의미로 유족회의 이름도 ‘백조일손(百祖一孫)’이라 명명했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당국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부 유족에게 이묘할 것을 강요하여 23기가 다른 곳으로 이장됐다가 9기가 되돌아오기도 했다.

현재의 백조일손영령 위령비는 1993년 8월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에 의해 세워졌다. 이때부터 매해 음력 7월 7일 위령제를 봉행하다 2008년부터 첫알오름 학살터에서 만벵디유족회와 합동위령제를 지냈고, 2015년부터는 다시 이곳에서 백조일손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백조일손영령 위령비에는 ‘이 빗돌 세운 뜻은’이라는 고성기 시인의 추모시와 건립 경위가 각인되어 있다.

또한 5·16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에 의해 파괴된 묘비 파편을 유리함에 모아 전시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21일부터 2001년 2월 20일까지 유해 추가 발굴을 통해 수습한 유해의 부분잔해 34점과 치아 3개를 묻은 표지석이 별도로 세워져 있다.

한편 2002년 7월 7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지회와 충북지회 교류 행사시 백조일손 원혼들을 위한 진혼굿을 현장에서 진행했는데, 당시 49개의 뜻을 담아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하며 토우(土偶) 49위를 제작해 땅 속에 묻고 기념 표석을 세웠다.

### (5) 만벵디 공동장지<sup>1)</sup>

1950년 음력 7월 7일 첫알오름 탄약고터에서 집단총살당한 예비검속 희생자 중 당시 한림 어업창고와 무릉지서 지서에 검속됐던 애월면·한림면 희생자를 안장한 곳이다.

이들 희생자 시신은 6년이 지난 후에야 수습했지만 백조일손에 안장된 시신들보다 조금 이른 1956년 3월 30일 수습했다. 당시 머리 모양이나



[그림 10] 만벵디 공동장지

치아, 썩지 않고 남은 옷, 소지품 등으로 일부 시신을 구별할 수 있었다. 한림읍 금악리 갯거리오름 서남쪽(금악리 2754번지)에 위치한 ‘만벵디 공동장지’는 시신 수습 당시 유족 한 사람이 부지를 기증하여 조성됐다.

1)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제주4·3희생자유족회 27년사』(2015) 등에서는 ‘만벵디...’로 표기되었으나 이 책에서는 제주어 전문가 자문을 얻어 ‘만벵디...’로 통일했음(편집자 주).

위령비는 2001년 9월 6일 건립됐고 건립 경위와 추모시가 함께 각인되었다. 또한 묘역 입구에는 묘역 조성 내력이 각인된 표석이 있으며, 한쪽에는 부지를 기증한 고방휴

선생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묘역 조성 이후 매해 음력 7월 7일 위령제를 봉행하다 2008년부터 첫알오름 학살터에서 백조일손유족회와 합동위령제를 지냈고, 2015년부터는 다시 이곳에서 만병퇴원훈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